

장수사과 연중 출하 가능

군 농기센터 등 '한국형 CA저장고' 개발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서정원)는 6일 오후 1시 농업과학원 관계자, 유통단체, 농업인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사과시험장에서 한국형 CA(Controlled Atmosphere) 저장고 현장 평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장수군농업기술센터와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공동으로 연구한 한국형 CA저장고는 기밀저장고, 질소발생기, 센서, 제어장치로 구성되어 있으며 질소발생기만으로 저장고 안의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 외국산 CA저장고에 비해 구조 및 작동이 간단하며 사용이 편리하다.

장수군농업기술센터는 이번 현장 평가회에서 2015년 10월 수확한 장수사과 5톤을 8개월간 CA저장한 사과와 일반 저온저장사과 그리고 1-MCP 처리 사과를 참가자에게 시식해 CA저장사과가 우수한 식미를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사과 저장방법별 품질평가 결과, 사과와 상품을 좌우하는 무게 감소율이 CA저장 사과가 3.3%로, 일반 저온저장 사과와 6.9% 보다 절반 이하로 낮아 일반 저온저장고에 비해 사과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형 CA저장고와 일반 저온저장고와의 경제성 분석결과, 사과 10

톤을 저장했을 경우 연간 수익이 일반 저온저장고는 1,200만 원인데 비해 CA저장고는 2,100만 원으로 1.67배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이번에 국산화에 성공한 '한국형 CA저장고'의 핵심기술 2건에 대해 특허출원하였으며 산업체에 기술이전 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과 재배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또한 CA저장 적용 농산물 품목을 사과뿐만 아니라 포도, 감, 대추 등 타 작목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서정원 소장은 "이번 '한국형 CA저장고' 개발은 장수군농업기술센터, 국립농업과학원 수확관리공학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저장유통과 3개 기관이 협업을 통해 이룬 성과"라며 "앞으로 장수지역의 사과 뿐만 아니라 오미자 등의 농산물에 적용하여 저온저장에서 CA 저장으로 전환시키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형 CA저장고 설치비용은 3.3m2당 약 300만 원 정도로 외국산 CA저장고의 1,000만 원에 비해 매우 저렴하며 질소발생기 1대로 여러 대의 CA저장고를 가동시킬 수 있어 3대를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이 233만 원으로 내려가 일반 저온저장고(3.3m2당 200만~250만원)와 비슷한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장수군농업기술센터는 6일 농업과학원 관계자, 유통단체, 농업인 등 1백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수사과시험장에서 한국형 CA(Controlled Atmosphere) 저장고 현장 평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진안 개최

53개 자치단체 참여 우수사례 발표회 등

진안군은 6일 2017년에 개최되는 제10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가 진안군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군은 2001년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한 진안군의 마을만들기 성과를 홍보함으로써 마을만들기 선진지 이미지를 강화시키고, 진안군 마을만들기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따라 진안군은 마을만들기 전국대회선정위원회에 진안군마을만들기 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유치신청서를 제출하여 안전시외의 치열한 경쟁 끝에 제10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개최지로 확정되었다.

진안군은 2007~2009년까지 3회에 걸쳐 마을지도자, 지역주민, 전문가, 행정담당자, 시민단체 활동가 등이 한데 모여 머리를 맞대고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경험, 시행착오를 공유하고 마을만들기의 현재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대해 고민하는 학술형 축제인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제10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는 53개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정기회의(서울시, 수원시 등)와 마을만들기 활동가 교류회, 분과별 학습교류회, 마을교류행사, 현장탐방, 마을만들기 우수사례 발표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제10회 진안군 마을축제와 연계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12월에 TF팀을 조직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이항로 군수는 "제10회 마을만들기 전국대회 유치를 통하여 진안군 마을만들기 정책의 홍보와 확산에 따른 '마을만들기 선진지, 진안!' 이미지 강화는 물론 도시지역 마을과 결연 확대를 통한 도농교류 활성화, 진안고원의 청정이미지 홍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새 교실서 공부 열심히'

장수 천천초, 본관 개축 준공 학부모·주민 등 170여명 참석

장수 천천초등학교(교장 전문권) 본관 개축 준공식이 지난 5일 천천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렸다.

이날 준공식엔 장수교육지원청 김영찬 교육장을 비롯해 관련 인사 및 학부모, 지역 주민 등 170여명이 참석해 준공을 축하했다. 준공식은 천천초 어린이들이 방과후 시간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갈고 닦은 가야금 병창과 우쿨렐레 공연을 시작으로 1시간 가량 이어졌다. 김영찬교육장은 격려사에서 "학교 건물이 네모반듯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환하고 예쁜 모습의 색다른 구조로 지어져 새 시대의 주역으로 자라날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학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천천초등학교 본관 개축은 사업금액 28억여 원의 지원받아 지난해 2월 첫 삽을 뜬 이후로 약 1년간의 공사 끝에 개축 15.5실(1,540㎡), 리모델링 2실(184.30㎡) 등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완공되었다. 지하 1층은 계단실, 기계실, 물탱크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상 1층에는 저학년 교실과 도

서실, 특별실, 지상 2층에는 고학년 교실과 특별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리모델링한 돌봄교실과 특별실, 강당이 본관과 도복도로 연결되어 모든 교실 간 이동이 편리하게 되었고,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실 한 칸에는 마루가 놓여져 있어 학생들의 독서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준공식에 참석한 천천초 어린이들은 "새로 지은 학교가 너무 예뻐서 좋아요", "새 교실에서 공부하니 공부가 더 잘되는 것 같아요", "도서관이 넓어져서 좋고 1층이나 2층에서도 들어갈 수 있어 너무 좋아요"하며 즐거워 하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할인쿠폰으로 알뜰 무주여행

여행만족도 UP 지역경제도 UP

무주군이 발행·배포한 2016 올해의 관광도시 관광통합 할인 쿠폰 북 "무주알뜰여행"이 관광객들의 여행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016 올해의 관광도시 관광통합 할인 쿠폰 북 "무주알뜰여행"을 발행한 군은 그동안 관내 관광안내소에서 배포해왔으며 SNS와 위메프, 티몬 등의 소셜 커머스를 통해 이를 적극 홍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지난 6개월 동안 1만여 명의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받은 쿠폰 북과 소셜 커머스를 통해 구입(판매가 0원)한 할인 쿠폰을 가지고 군을 방문했으며 장소별로는 무주덕유산리조트(콘도라 이용료, 리프트 이용료, 눈썰매이용료, 물샬매 이용료 10% 할인)에 8천여 명, 태권도원(입장료 50%)에 1천 5백여 명, 반디랜드(입장료 20%, 천문대이용료 20%)에 6백여 명, 머루와인동굴(입장료 10%)에 1천 5백여 명이 다녀갔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억여 원의 입장료, 실 매출과 5억여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했으며 이외에도 4만여 명이 더 소셜 커머스를 통해 쿠폰 북을 구입(판매가 0원)한 것으로 집계돼 하반기 방문객 수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문화관광과 김영광 관광육성



답답" 쿠폰 북의 인기가 날로 더해가고 있어 추가로 더 발행할 계획"이라며 "7월 14일부터 개최되는 제10회 세계문화엑스포와 8월 27일 시작되는 제20회 무주반딧불축제 관광객 유치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밝혔다.

군은 지금까지 총 1만부를 제작 무주군 관광안내소 및 주요관광지 등에 비치했으며, 1만여 부를 추가로 더 제작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비치하는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2016 올해의 관광도시 관광통합 할인 쿠폰 북 "무주알뜰여행"에는 각 명소 소개와 찾아가는 길, 이용요금, 이용시간 안내, 입장료와 시설이용료 할인 쿠폰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업서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작해 2016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를 알리고 관광객들의 여행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특별블리스

진안군, 재해대비 현장점검

진안군은 6일 집중호우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호우피해 예방을 위해 재해예방사업장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급경사지붕괴취약지역 1개소, 소하천 3개소 현장을 대상으로 위험 구조물 철거 여부, 하천 내 장애물 방지 여부, 토사유실 방지를 위한 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여부 등 재해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조치 상황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히 현장점검 이후에도 재해예방을 위해 현장관계자와 비상체계를 구축하여 호우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7월 장마이후 폭염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을 대비하여 본격적인 폭염 대응 계획을 추진 중이다.

폭염특보 발령 시 노약자나 임산부의 폭염 행동요령에 대해 전광판에 지속 홍보 및 무더위쉼터(경로당)에 폭염행동요령 비치, 폭염피해 예방 현장계도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15일부터 덕유산국립공원

위험 구간 4곳 출입금지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홍대의)는 여름철 성수기 기간 중 역사사고 위험이 높은 덕유산국립공원 내 이달 15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계획의 출입을 금지한다. 출입을 금지하는 계곡은 제2인 월교~백련담, 수성대~파희~만조담, 수성대~외룡대 일원, 화서교~철연계곡 등 4개 구간이며, 출입 금지된 구간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입수통제시설 설치 및 국립공원사무소 안전관리전담반 등 안전감시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등 탐방객 안전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정된 장소 외 취사·야영·수영·무단출입 등을 단속하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윤대원 탐방시설과장은 여름철 역사사고 등을 비롯한 안전사고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탐방객들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벼농사, 비료 1회 살포로 끝낸다

진안군, '파종상 비료' 이용 시비량·노동력 절감 기대

진안군은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대다수가 고령인 점에 착안하여 벼농사의 노동력과 화학비료 절감을 위한 '파종상 비료'를 이용한 벼 재배기술을 실증하고 있다.

파종상 비료는 볍씨를 파종 할 때 포만 1상자 당 500g을 1회 살포하여 일반재배에서 밀거름, 가지거름, 이삭거름을 시기별로 3회 살포하는 번거로움을 줄여 관행 대비 58%의 비료량 절감, 노동력을 80% 절약되어 비료량과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렇게 비료를 살포하면 논 전체면적 비료 살포로 인한 비료의 손실을 줄이고 부영양화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등 친환경농업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논두렁까지 비료 뿌려짐이 없어 잡초의 생육을 감소시킨으로써 예초작업도 1~2회 단축하



는 장점까지 있다.

파종상 비료로 직접 재배하고 있는 염제수(30, 백운면)농가는 "육묘기간도 짧고 사용량과 노동력이 절감됨에도 불구하고 벼의 생육상태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왕우렁이 농법에도 적합하다"며 "꼭 우리 진안군에 필요한 기술이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노동력과 비료량 절감에 크게 도움이 되는 파종상 비료 재배기술을 올해 1.5ha 지역적 실증을 거쳐 내년에는 시범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완주군, 대둔산 등산로 정비 추진

느세골~동심바위~구름다리 9월까지 2억 3200만원 투입

완주군이 주민과 등산객들에게 쾌적한 등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둔산 등산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등산로 정비 구간은 느세골~동심바위~구름다리 구간으로 도비·군비 2억 3천 2백만원을 투입해 오는 9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안전위험 구간에 훼손된 돌계단을 정비하고 경사가 급해 위험한

구간에는 난간 등 안전시설물이 설치된다.

또한 등산객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목교설치 및 토사가 유실된 부분에는 친환경적인 아자메트를 설치하여 비가 와도 등산에 지장이 없도록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등산로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설공원사업소 관계자는 "탐방객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친환경적이면서 편안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로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군, 11일 클래식 무료공연

진안군은 오는 11일 군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무료 문화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진안문화의집 마이홀에서 개최되며, 키에프 메트로폴리탄 오케스트라 초청 클래식 열린음악회가 진행된다.

클래식 열린음악회는 키에프 메트로폴리탄 심포니 오케스트라 연주에 정주영 지휘자의 지휘로 진행되며, 국내 정상급 성악가인 바리톤 서동민, 소프라노 강예진과 영재 바이올리니스트 이은서가 참여한다.

아름다운 선율과 목소리로 더위에 지쳤던 군민들에게 한여름밤에 아름다운 꿈을 꾸듯 환상적인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며, 그동안 문화공연에 목말라하던 군민들의 욕구를 제대로 채워줄 것으로 보인다.

키에프 메트로폴리탄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1999년에 창단된 우크라이나 교향악단으로 최고의 뮤지션으로 구성된 유럽 정상급의 악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